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불멸의 업적

박 순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탁월한 선견지명과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날에 대한 숭고하고도 뜨거운 책임감을 지니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것은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중에서도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을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나가는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가 우리 나라에서는 빛나게 해결되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288페이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갈수 있는 후계자로 높이 내세우심으로써 선군혁명령도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는 조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신것이다.

령도자가 되려면 특출한 령도실력과 령도풍모를 갖추어야 하며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아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찍부터 군사에 능통하고 다재다능하신 천품적인 자질과 풍모를 지니고계시였다.

어린시절에 벌써 강의한 신념과 의지, 남아다운 배짱과 담력, 비상한 탐구심과 불타는 열정, 활달한 성품과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뛰어난 천품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원수님께서 일찍부터 총대의 귀중함을 깊이 체득하고 총대와 깊은 인연을 맺도록 해주시면서 백두산혈통을 이은 장군형의 령도자로 키우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였다.

일찌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과 업적에 대한 론문을 집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의 혁명활동기간은 원수님께서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간직하시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모진 고난과 시련의 언덕을 넘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피어린 투쟁을 벌려오는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는 철의 신념과 의지가 자리잡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 깊고깊은 심증을 깊이 헤아리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사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하여주시고 대학기간 군사과학의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만경대가문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고 우리 조국을 정치와 함께 군력으로 강성번영하는 나라로 만들 결심을 굳게 다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나날 교원들에게 자신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위

업을 군사적으로 믿음직하게 보좌해나갈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할 무거운 의무가 있다고 하시면서 동서고금의 군건설사와 전쟁사를 정통하시고 최고사령부작전대에서 장군님의 주체의 군사학강의를 통하여 현대전쟁이 요구하는 전략가, 작전가로서의 품격을 완벽하게 갖추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95(2006)년 12월 24일 앞으로 문무를 더 잘 겸비하여 선군조선을 역세계 이끌어나가라고 뜨겁게 축복해주시며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증과 휘장을 수여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로고를 천만분의 일이라도 덜어드리는 충실한 전사가 되시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지신 이날의 결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선을 빛내어나갈 의지를 안으시고 해솔는 룡남산에서 다지신 력사의 맹세와 같이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해나가실 철의 신념과 의지를 천명하신 력사적인 맹세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제일호위병이 되시여 장군님과 함께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면서 선군령장으로서의 특출한 령도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사뿐아니라 철학, 경제, 법률, 체육, 예술, 건축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하시면서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더욱 완벽하게 갖추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적풍모와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후날 **김정은**동지는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겪으며 인생체험도 많이 하였다, 그는 인민들과 함께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가면서 혁명동지와 인민에 대한 믿음,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간직하고 혁명가에게 있어서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하며 힘있는것이 믿음이라는 철리를 가슴속깊이 새겨안게 되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하고도 웅심깊은 로고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무를 겸비한 희세의 정치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곳곳이 계승해나갈수 있는 걸출한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실수 있게 한 무한한 헌신이였고 혁명의 후계자에게 선군혁명의 바통을 넘겨주는 숭고한 계승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1(2012)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맞이한 새해의 첫날아침에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건설하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철석같은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중국과 로씨야, 미국, 일본 등 세계 수많은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은 《**김정은**대장 땅크부대시찰》, 《최고사령관의 첫 시찰은 땅크사단》 등의 제목들을 달고 련일 보도하였다.

미국의 CNN TV방송은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가 군부대에 대한 첫 공식시찰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계속해나갈것이라는 시사로 된다.》라고 전하였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신봉》도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대장이 1월 1일 조선인민군 제105땅크사단을 시찰하고 새해를 맞는 장병들을 축하하였다. 105땅크사단은 조선전쟁의

초기단계에 서울에 맨 먼저 돌입한 부대이다. 조선에서는 **김정일**령도자가 1960년 8월에 **김일성**주석과 함께 이 사단을 방문하여 군사를 우선시하는 선군사상에 의한 지도를 개시하였다고 한다.

김정은대장의 105땅크사단시찰은 선군조선계승을 강조하자는 목적이 있는것 같다.》라고 보도하였다.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첫 시찰보도에 접한 세계는 조선에서는 달라질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천만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리라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를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원수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면서 가시는 곳마다에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되어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곁고 운명을 같이할 신념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으며 《발걸음》과 같은 흠모의 송가들을 널리 부르면서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수위에 하루빨리 모실것을 절절히 념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사를 반영하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수위에 높이 추대하도록 하신것은 선군혁명령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는 조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함으로써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전반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곧 나의 사상과 령도이라고,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전당과 온 사회에 사상의 유일성,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일찌기 인민군대안에서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체계를 세우도록 하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에서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에 절대적으로 충실하며 원수님의 명령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엄격한 명령지휘체계와 혁명적군풍을 수립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원수님께서 맡겨주시는 혁명과업을 그 어떤 조건에서도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당과 국가, 군대의 간부대렬을 경애하는 원수님과 운명을 같이하고 혁명을 끝까지 함께 할 충직한 일군들로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새 세대 청년들이 우리 혁명의 지나온 년대들마다에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것처럼 원수님을 잘 받아들여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모든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지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변함없이 받아들여온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

가리라는 굳은 믿음과 간곡한 당부를 남기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주체100(2011)년 12월 30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으며 주체101(2012)년 4월 11일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4월 13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김정은**동지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선군혁명위업계승문제, 령도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었다.

실로 위대한 장군님은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선군혁명위업계승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시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오신 희세의 위인,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불세출의 위인,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어야 할것이다.